



1. 아니사 응(Annysa Ng) <Tea Silk and Porcelain(Empress Chun Hui)>
 2. 다니엘 발처(Daniel Baltzer) <Broadcast 21>
 3. 알렉산더 레이나(Alexander Reyna) <Big money now>

이미지와 실재_현재의 가장자리에서

Over The Rainbow_뉴욕 젊은 작가 16인 특별 초대전 11.6~11.23 유아트스페이스

전시는 자유와 풍요, 권력과 지배, 물질과 욕망, 그 궁정과 아이러니가 뒤섞여 있는 '팩스 아메리카나'의 이중 실상에 대한 르포르타주적 성격이 강한 전시라고 해도 될까. 이러한 판단의 시적은 우선 전시가, '아메리칸 드림'을 뚫거나 그것의 실체를 목격할 채 모국 혹은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생활하며 활동하는 한국, 일본, 중국,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다국적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기획자는 지난 반세기 이상 멀티컬처리즘의 상징, 특히 불협화나 불일치를 지닌 일련의 타자의 역사들과 목소리들, 즉 여성, 피식민자, 소수집단, 권리되는 성적 욕망의 희생자의 상징 또는 반전, 평화 운동의 상징으로서의 무지개를 뉴욕이라는 도시, 아니 정확히 말해 비미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이자 미국이 제조한 신화적 산물로서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입시키고 있다. 하이테크 인터랙티브와 설치, 비디오와 사진, 디지털 프린팅과 페인팅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오가는 작업들은 현재 팩스 아메리카나 체제 아래 세계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드리워진 위기와 문제들을 오티프로 삼거나, 또는 사소하고 내밀한 일상들을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예컨대, 911테러 이후 공공장소에 버려진 가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는 캐나다 출신 작가 제이미 알렌(Jamie Allen)의 <Left Luggage>, 아메리칸 드림의 이상화된 아이

콘으로서 TV, 영화 등 대중매체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평화로운 전원주택 이미지와 이라크 최전방의 전쟁 상황 소리를 오버랩시킨 미국인 작가 리사 달(Lisa Dahl)의 <On the Homefront>, 미국인들의 시선 속에 스테레오 타입으로서의 동양인이나 흑인, 남부 백인 등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자신의 사진작업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타자나 타문화에 대한 모욕적 정형화를 고발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정선태의 <Suburban Fury> 등은 환영이거나 이미지이면서도 실재하는 무지개나 아메리칸 드림처럼 팩스 아메리카나의 이중 실상이 지닌 아이러니를 깨닫게 한다. 한편, 페미니스트이자 동성애자인 모니크 위틱의 소설 속의 가학적이고 도발적인 성적 문구와 이슬람 죄수들에 대한 미군의 성고문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며 구겨진 종이 위에 수를 놓은 일본계 미국인 작가 G. 브룩스 타카하시(Ginger Brooks Takahashi)의 <Our nature is Our virtue>,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들은 문화적 관습에 의해 욕망하게끔 만드는 가짜임을 역설하는 한국인 작가 이재이의 <목욕탕> 등은 사소하거나 내밀한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개인이 대면하는 이미지와 실재, 허상과 실상의 틈새를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보면, 이 전시는 무지개나 아메리칸 드림이 단순한 환영적, 신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생존의 어두운 이면인 현재의 가장자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 김주원 미학, 큐레이터